



성도의 벗 5
1975



영감의 메시지

(1974년 11월 3일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회에서 행한 연설, 처치 뉴스, 1974년 11월 9일, 3페이지)

기도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

영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적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이 회복되어 인간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 오는 복천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바를 과연 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성패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악을 구별할 수 없

다고 구실을 대어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선악을 구별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모로 7:16) 아무도 악행을 저지르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행복한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의를 갖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규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인도와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오래 전에 주님께 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항

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5)

나는 은밀한 기도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가족 기도와 그룹이 갖는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골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겸손함, 진지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님과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

월간
성도의 벗 순서

제11권 제5호
 1975년 5월호

- 기도 매리온 지 롬니
2. 어느팀이 지고 있습니까? 마빈 제이 애쉬튼
 5.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13.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15. 말일 존 에이 그린
 19.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하워드 이 윌리스
 21. 해결책을 찾은 화니토 캐롤 에스 레몬
 24. 옛 중국의 이야기
 26. 캄캄한 밤의 침례 캐티 트록스러
 28. 숨은 그림 찾기 주디 케이프너
 29. 동굴 칼라 워런드
 30.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33.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하라 엘 톰 페리
 37.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토마스 에스 몬슨
 41. 가장 중요한 지식 로버트 엘 심프슨
 44. 사탄을 이기는 권세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46. 선교부장단 메시지 한 인상
 47. 내외소식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8호

발행인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주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행

지난 여름 어느 날 오후 나는 애쉬튼 자매와 함께 직업 야구단의 시합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우리는 뒤늦게 입장한 사람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게 “어느 팀이 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지는 팀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점수판을 보고, 게임이 타이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며 다른 곳으로 걸어 갔습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자 애쉬튼 자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잘 모르는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

어느팀이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하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 “그 분이 당신을 잘 아는 분이라면 당신은 어느 편이 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아니에요. 누가 조금 앞서거나 누가 뒤에 있는 것이지 결코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내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 미소로 대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도가 점수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욕이 점수보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점수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이라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자기의 몸에다 “버린 몸”이라는 글을 새기고 다니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를 주 교도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한번은 또 두 소년에게 수영을 잘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한 소년은 “수영은 못합니다. 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대답



한 말을 듣고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합당한 태도란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처져 있을 수 있으나 옳은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때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행이 끝난 후에야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멀리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해 파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전진하기 위해서 기쁨, 낙관적인 태도, 용기를 갖고 매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교성 98 : 1),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 : 7),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교성 78 : 19)라는 말씀은 추천할 만한 감사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보람이 뒤따르는 영향력있는 행동의 지침이라 하겠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매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뒤로 처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의 기록을 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영원을 향한 행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확신에 찬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확신과 겸손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확고한 자기 신뢰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의 내면에 뜻깊게 발전시켜야 할 신성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합당한 태도는 우리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미 높은 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기주의를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을 둔화시키는 마취제라고 말한 사람도 있읍니다. 이기주의란 영혼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 가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란 일순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합당한 태도란 우리에게 자기 수련과 자신을 자제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강인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19세기 작가인 조사이아 길버트 홀랜드의 시구를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홀랜드 박사의 흉상은 홀 오브 체임에 있는데 그 흉상 밑에는 “사람을 구함”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주셨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강인하고, 도량이 있으며, 참된 마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뇌물로도 매수당할 수 없으며 의지와 주관을 지니고 있고 명예를 사랑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합당한 태도란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내력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초 연설에서 요셉 스미스나 해롤드 비 리나스 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대해서 갖는 확신을 용감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셉 스미스가 보인 불굴의 의지와 태도를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그의 위대성과 그의 태도를 나타내는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것만 같읍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읍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이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읍니다.”(요셉 스미스 2 : 25)

합당한 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적응 능력은 변화나 실망의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련과 비극에 처했을 때 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날을 밝은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경지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뽀이 아닙니까? 희망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실패하거나 뒤로 처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의 능력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 혹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마 19 : 21)고 권하신 희망과 신뢰에 찬 구세주가하신 말씀을 인식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태도를 지니셨습니다. 그는 치뤄야 할 대가가 어떠한 그의 부름에 충실하였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가장 값진 재화입니다. 그의 발자취 덕분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수시로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젊은이가 선교사를 마쳤다는 사실은 그가 어떻게 선교 사업을 마쳤는가 하는 점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였지만 고통을 받는 어머니나 병자나 친구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나 봉사는 내면의 위대성이 외적으로 증거된 것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봉사할 수 있으며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나사렛은 보잘 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도 큰 업적이 남겨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배출한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 : 46 참조) 그러나 예수의 태도와 사

업과 생애가 그 작은 마을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게 된 그를 통해 한때 멸시받던 마을이 숭앙받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서도 배척당한 그가 의지와 노력으로 왕 중 왕이요, 만군의 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였으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멸망시키고 패배시키고 낙담시키려는 자에게 그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전당을 더럽히려는 자에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마 21 : 13)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 준 말이나 행동은 그의 인품, 확신, 용기, 합당한 태도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었습니다.

용감한 행위를 좋아하거나 합당한 태도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재차 읽어 보아야 합니다. 평강의 왕인 그는 위엄있게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가 이룬 일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도 그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이 승리를 쟁취할 것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불평, 험담, 보복, 실망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위엄있는 말은 결코 그와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 : 1),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 : 33) 라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주에 군중의 외침 소리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달라”는 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지상에서 생을 마친 마지막 주에 있었

던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련을 당하던 때에도 끝까지 성실함을 잃지 않은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용기와 신성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 아버지와 대화를 갖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 방문(“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 : 39]), 전쟁 후 승리의 표적,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등을 그려 보십시오. 그는 그를 찾는 병사들과 마주치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내로라”(요 18 : 4, 5)하고 두려움없이 대담하였습니다. 성내를 바라 볼 수 있는 황량한 언덕 위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를 유한한 육안으로 바라보며 “그가 죽는다. 그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옳게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패배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며 승리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굳도다 그 기초”라는 찬송가 7절에서처럼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에 찬 태도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은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16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의 힘과 그의 신성함과 그가 지상에 온 목적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을 극복하고 끝까지 성실히 살아 가며,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을 위해 주신 그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關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국가의 공식 생활, 교회에서의 헌신, 가족의 단합을 위한 노력 등으로 신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남다른 특성을 보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를 관리하도록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폭넓은 경력을 보아서는 물론 교회 역사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서거하시고 스펀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이 될 때 이 직책에 지지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 12월 30일 킴블 대관장에 의해 이 직책에 성별되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음으로써 주님의 왕국을 이끄는 지도자의 대열에 또 남다른 재능과 업적과 온점함과 겸손함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지닌 분이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144년 동안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81

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름이 가져다 주는 영예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알 수 있으니, 십이사도 정원회를 관리하는 데는 막중한 책임과 의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이사도 정원회란 특별한 조직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정원회를 조직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형제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유대와 형제애를 맺고 있습니다. 열 두 명인 이들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실천하고 있음

니다.

평화와 풍요한 삶의 기회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받은 이들은 마음과 행동으로 굳게 뭉쳐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 위대한 일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십이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업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계획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매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받드나, 결코 대가를 바라지는 않으며, 필요하다면 건강과 재산까지도 희생해 자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교성 27 : 25) 하나님 왕국 건설에만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벤슨 회장은 바로 이러한 헌신의 모범을 보인 사

람입니다. 그는 세 가지 분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째가 교회요, 다음이 가정이며, 세째가 국가입니다. 벤슨 회장은 헌법의 보존을 위해 열심히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각에서 직책을 맡게 된 것도 이러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직책을 받아들여주도록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그를 격려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 경력을 살펴 볼 때 영적인 성품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업의 중심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행정부의 활동에도 영적인 성품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일로 봉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훌륭한 가정 생활에 빛과 활기를 준 것도 그의 영적인 성품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그러한 성품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십이사도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펠버트 엘 스테이플리, 로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록,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솔트레이크시티 집의 벽화 앞에 선 벤슨 회장 부처

뒷뜰에서 벤슨 자매와 함께 장미를 피고 있는 벤슨 회장

벤슨 회장은 농림 장관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흐루시초프 수상 및 고위 정부 관리들과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벤슨 장관은 일단의 기자들과 함께 어느날 모스크바에 있는 침례 교회를 찾아 갔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서 그 때까지 존속해 있는 몇개 안되는 교회였습니다. 회중은 주로 연로한 노인들로 여자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 오자 회중들은 놀란 표정이었으며 눈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미국인이 연단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벤슨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신

다는 걸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압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이 러시아어로 통역되었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회중석에서는 참으로 그렇다는 동의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얼굴 가리개를 걷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앞을 볼 수 없도록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수행 기자도, 마지 못해 이곳까지 동행해 온 많은 강심장의 기자들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종교 집회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회중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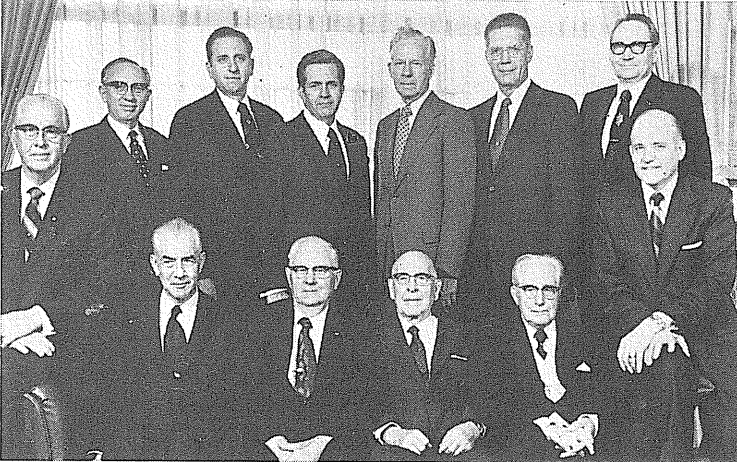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두가 전에 느껴 보지 못한 뜨거운 영을 느꼈습니다. 모두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기도를 확실히 믿습니다”하며 장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필요한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 올 때와는 정 반대의 표정으로 조용히 예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 반가와하며 아쉬워하는 그곳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이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 성도들의 입에서 이 세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이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젠하워워 대통령이 그의 첫 각의를 소집하였을 때 그는 막강한 그의 참모진을 보고 큰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곧 그 미소는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처리할 막중한 국사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어야겠다고 말하고 농림 장관에게 첫 각료회의를 기도로 시작하자고 부탁하였습니다.

매우 놀랐으나 정부 일에 영적인 요소가 결들이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장관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영감에 찬 헌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는 원리와 복된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운 행정부에 전능하신 하나



“남매 중 말인
벤슨 회장의 생후 3개월 때
모습 자녀가 모두 아이다호주 휘트니의 농
장집에서 태어났다.

님의 인도와 지도가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각의 때는 물론 농림업의 집회에서 지도를 드리는 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연방 예치 은행의 회장 겸 책임자요 뉴욕 코넬 대학 농대학장이었던 윌리엄 아이 메이어스씨는 벤슨 회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씨는 고결한 성품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분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의 이 찬사에 모두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정계에서도 그는 폭넓은 우정과 이해에 찬 마음과 신뢰받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분으로 늘 평가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이젠하워워 대통령은 전에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그를 새로운 행정부의 중요한 부서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만이 그에게 비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는 위대한 모범을 보인 생애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순수한 동기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사심없는 소망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그가 아끼는 신앙의 이상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과 함께 나누었으며, 이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황금률대로 살도록 노력하였으며, 남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교성 4:5) 있으며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벤슨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온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의 끊임없는 모범과 권고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신권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는 점을 감사하

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안식일에 대한 나의 추억은 기쁘고 즐거우며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1972년 2월 10일 신권役員회 모임 말씀)

벤슨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이 원리를 지켜 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이 원리에 따라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도 다 견디어 냈습니다. 그는 젊은 선교사로서 많은 난관에도 봉착했었습니다. 그는 각료로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무성 주관회의에서도 수차 공격중의 야유를 받았으나 그 때마다 그의 평화로운 의지와 열렬한 웅변으로 반대자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심과 분별력이 없는 정적으로부터도 심한 공격을 받았으나 그는 고결한 성품,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는 그는 젊은 시절에 배운 이상을 그의 인생의 화폭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경력 중 가장 놀라운 점의 하나로 그가 그의 가족에게 보인 굳건하고 변함없는 충성심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유대를 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벤슨가에서 입증된 그러한 유대를 다른 어느 가정에서도 쉽사리 볼 수는 없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이 그의 가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겠읍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용감히 능력껏 해내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벤슨 자매보다 헌신적이고 사랑에 찬 어머니와 아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의 자녀들보다 더 유능하고 충성심이 많고 단합된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효과있게 복음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르치고 간증을 키우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는 이처럼 훌륭한 분이 이룬 큰 업적을 아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소련을 공식 방문 중 붉은 광장을 찾은 장관 부처와 두 딸 비버리와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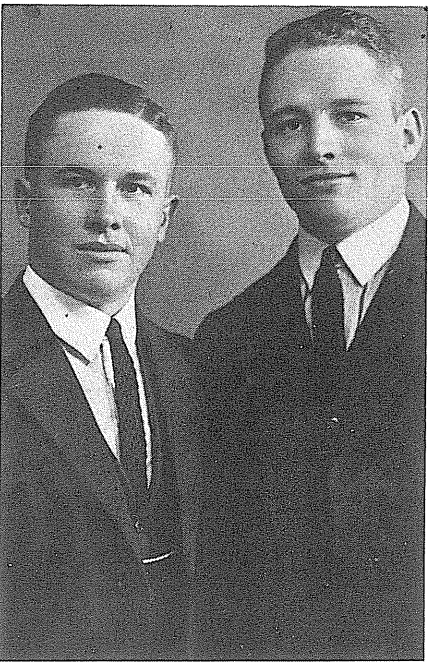


1959년 10월 1일 모스크바의 침례 교회에서 연설을 하는 벤슨 장관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워 대통령 내각의 농림 장관으로서 대의원장 앞에서 선서하는 모습.

농림 장관으로 홍콩 방문 중 성도들과 만 벤슨 회장.



1951년 미국 소년단 최고의 영예인 실버 바팔로상을 수상하는 장관.

벤슨 회장과 그의 첫 선교 동반자였던 랄프 에스 그레이 장로

이제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출생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하늘의 기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는 열 한 명의 자녀 중 맏이로 남부 아이다호주의 농장도 맡아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후에도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젊은이로서 그는 농사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30대에 아이다호주 보이즈에서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국립 농업 고문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후에 국립 농부 협동 평의회 집행 역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농업 기구 대회에 미국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1946년에는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 공업 모임 미국 대표단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협동 기구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952년 50대에 그는 아이젠하우워 대통령 내각의 농림 장관이 되어 8년의 재임 기간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에서 놀라운 업적을 보여 11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외에도 많은 특별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받은 자신의 학위 이외에 따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어느 훌륭한 지도자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벤슨 회장은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주 휘트니에서 조지 티 벤슨 이세와 사라 던클리 벤슨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열 한 명의 자녀 중 맏이였습니다.

그는 출생시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전지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아기에게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신권에 의한 병자 축복, 더운 물과 찬 물에 번갈아 가면서 나를 넣은 두 할머니의 재빠른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환성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1847년 7월 24일 첫 개척자

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에 온 증조부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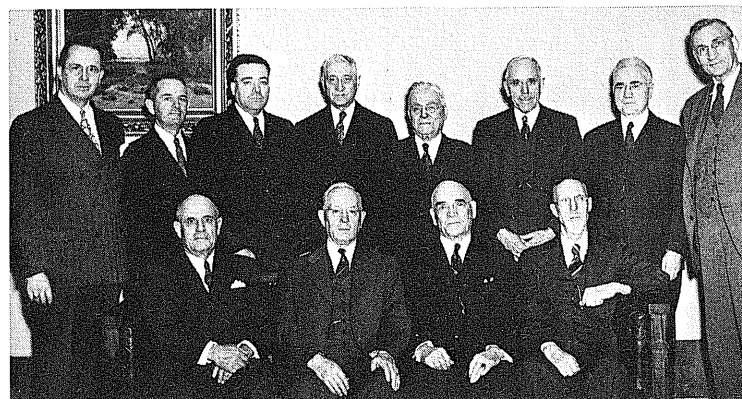
그는 4세 때 처음으로 마차를 몰았으며, 농촌에서 자랐으므로 모든 농사 일을 다 맡아 해냈습니다. 그는 일의 의미를 배웠고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지런한 성품을 입증해 주는 일로 그는 16세가 되는 어느 날 하루만에 혼자서 사탕수수밭 1에이커(약 1224평)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의 대가로 12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과 학업의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스포츠를 즐겼으며, 농구와 야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다호주에서 자란 해롤드 비 리 대관장과 함께 야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아이다호주 프레스턴에서 오네다 스테이크 아카데미에 다녔으며, 날씨가 좋은 날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학교에 갔으며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타주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농업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여기에서 덴마크가 이주한 시계 제조업자이며 유타 개척시 보석상을 한 덴마크 귀족인 칼 시 아무센의 프로라아 무센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로간 학교에 있던 벤슨 장로는 제1차 세계 대전 말 군에 입대하였으며, 1918 전군을 휩쓴 유행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해 가을에는 사탕수수를 거두어 들이는 데 일손이 크게 모자랐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토요일에 이 일에 참여하도록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벤슨 회장이 사도로 성임될 당시의 십이사도. (앞열 좌에서 우로)스티븐 엘리차즈, 조셉 필딩 스미스, 조지 에프 리차즈, 조지 앨버트 스미스. (뒷열 좌에서 우로)에즈라 태프트 벤슨, 스펜서더블류 킴블, 해롤드 비 리, 앨버트 이 보우원, 찰스 에이 칼리스, 조셉 에프 메릴, 존 에이 윌소, 리처드 알 라이만.

일 아침 벤슨 장로는 절실한 필요를 느껴 하루 일찍 고향으로 떠났으나 고향 집에 돌아 온 직후 유행성 독감에 걸려 가족의 간호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막사의 양 옆에서 자는 그의 친한 두 동료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그는 영국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귀국하여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으며, 1926년에 명예의 졸업을 하게 되었고, 아이오아주 아메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프로라는 하와이 선교부로 부름을 받고 떠났으며, 애인인 벤슨 장로가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1926년 9월 10일 프로라 스미스 아무센과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십이사도인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주례로 솔트레이크의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벤슨 회장의 출생지인 아이다호주 휘트니는 휘트니 장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927년 그는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다호주 휘트니의 농장으로 이사갔으며, 여기에서 농사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 오발과 함께 1923년 농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해 가을 오발은 덴마크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농장의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1931년 그는 새로 조직된 아이다호 대학 농업 경제 및 서장과의 새 과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33년 그는 보이즈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해에 아이다호 협회 평의회 사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6년간(1933년부터 1939년까지) 보이즈 스테이크 부장단의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그 기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나가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1937년 보이즈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으며, 그 직책을 2년간 역임하였습니다.

1939년 그는 미국소년단 평의회 일원이 되었으며 국립 농업 협동 평의회 사무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에 부름을 받아 그는 와싱턴 디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간 지 1년만에 그는 와싱턴 디시에 새로 조직된 와싱턴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부름은 1943년 7월 26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으로부터 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명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 7일 대회에서 그 직책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미국 소년단 평의회 위원이 되었으며, 1945년에는 소년단 12지구 집행 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후반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6년 6월 15일 그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럽 선교부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특별한 사명은 선교부를 재개하고 전쟁에 지친 유럽의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넣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영국 런던의 교회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제1차 국제 농협 기구 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유럽에서의 교회 봉사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쓰라린 어려운 경험의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6년이란 전쟁 기간에도 꺾이지 살아온 성도들의 참 모습을 보았으며, 유럽에 다시 한번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이들에게 의식주를 전달해 주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는 핀랜드를 복음을 전할 땅으로 헌납하였습니다.

1년 후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1952년에 새로 선출된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워 대통령은 그를 농림 장관으로 불렀습니다. 이 문제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상의한 그는 대관장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후 수락하였습니다.

이 직책에 부름받은 그와 벤슨 자매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농업 문제로 전 세계를 두루 다녔습니다.

1961년 1월에 8년간의 장관직을 마치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1965년 1월 4일 그는 위대한 미국인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다시 유럽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독

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봉사하였으며 1965년 10월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을 위해 세계 수많은 나라를 두루 여행하였습니다. 1961년의 여행중 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복음이 전파될 땅으로 헌납하였습니다.

1971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입헌 군주국 페르샤의 건국 2,500주년 기념제에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28개의 종파 대표가 초대되어 참석하였습니다.

가정의 사랑과 유대는 벤슨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벤슨 형제나 자매는 모두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에 받은 가정 교육의 결실은 그들이 이룬 가정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벤슨 회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실천해서 오는 완전한 가정의 사랑과 충성심과 유대가 우리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와 그들의 반려자와 가족이 모두 것처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 가족 회의,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를 때 가족 모두가 신앙과 간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의로운 가정 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48년간을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벤슨 자매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면 통나무 집에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내에게 큰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 못됩니다.

신권과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 가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싸우거나 화를 내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써 이들을 가르쳤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읽어 주거나 문제를 토론하거나 서로의 도움으로 이로움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마음속에 똑같은 일생의 목표를 지

녀 왔습니다. 이 목표란 복음대로 살며, 가장 중요한 일로 교회와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고 항상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슨 형제의 자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부모는 꿈쩍이 이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훌륭한 말일성도와 훌륭한 시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모범으로 보여 주는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벤슨 회장과 자매 사이에는 6명의 자녀와 31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부름을 받아 봉사한 직책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것이 교회의 직책이건 공적이건 간에 인류를 위해 보인 그의 평생의 헌신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찬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44년 1월 5일에 개최된 전국 농업 기구 협의회 대표자 연례 모임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줄곧 우리는 그가 그의 활동 분야에서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임을 알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적인 힘에 이끌렸으며, 전국의 농부나 그들의 기구가 당면하는 큰 문제를 과오없는 판단력으로 대처해 감으로써 큰 이로움을 안겨다 준 예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의 성실성, 무한한 능력과 정직성은 우리 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우러러보게 하였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람이 갖는 끊임없는 사랑과 높은 존경심은 평생토록 그가 가는 곳을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삶을 헌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만족감을 그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벤슨 회장과 지내 온 평생을 회고하면서 벤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동반자와 함께 살아온 48년의 결혼 생활과 신전 결혼을 한 자녀와 31명의 손자와 영원한 행복의 복음을 통해 오는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벤슨 가족은 말일성도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인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행 아들 테썬은 신경질적으로 칩대에서 몸을 뒤흔다. 거리면서 돌아 누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와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는 고향인 노르웨이의 스티린을 떠나 베르겐 시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

“난 정말 인생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정치에도 혼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나는 그곳에 누운 채로 무슨 일이든 옳은 일을 찾으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옳은 방법을 알기만 하였던들 인생은 좀

쉬워졌을 겁니다.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든 나는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혼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의 형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친구와도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바른 길을 가리켜 주지는 못했다.

매일 저녁 그는 술집에 나가서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나는 술을 마시려 나왔다가 좀 일찍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두명의 외국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아파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 고스타 베링 선교부장이 그의 보조인 아들 테썬 장로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





트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아 그들에게 영어로 몇마디를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노르웨이에서 무얼 하시죠?”라고 그는 물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물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그들은 대답했다.

“난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하며 아들은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왜 선교사로 나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지를 알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인생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로버트 돈 하디와 캐나다 앨버타에서 온 그램 러셀이었다.

“형제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하며 하디 장로가 말했다.

젊은 노르웨이 청년은 동의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들과 복음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물론경 한 권과 한쪽에 모로나이서 10장 4절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는 4단계 방법을 적은 카드를 주었다.

“나는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아 보기 위해 빨리 읽었습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간증을 얻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라 2호’라는 책과 저자인 토르 헤이어달*이 그 책에서 물론에 관해 언급한 내용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론경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참으로 참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물론경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술집에 다니며 술을 마셨다.

“나는 선교사들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즉시 중단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했고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몰랐고 생각할수록 내 자신을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계속해서 커피를 권했습니다. 다시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 잔을 받아마셨습니다. 나는 교회원은 아니었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라고 그는 옛 일을 회상했다.

아들은 처음으로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웠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몇 주 후 선교사가 침례를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싫어요”라고 대답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선교사에게 대답했다. “좀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3개월 후에 나는 선교사를 만나면 준비되었다고 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들이 내게 물었으며 나는 즉석에서 동의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진리를 찾았으며 생활도 완전히 바뀌었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웃기도하고 울기도 하였읍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고 함께 갖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 나는 기꺼이 이를 따랐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곧 아들은 주일학교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1년만에 장로가 되었고, 곧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의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장인 고스타 베링의 보좌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열성적이고 능력있는 선교사였다.

그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인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조국과 국민을 잘 알고 이해합니다. 내가 남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서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선교사를 배출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노르웨이를 대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언자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토르 헤이어달...노르웨이 작가, 탐험가, 미국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태평양제도에도 정착하였다는 학설을 주장하는 인류학자.

말 일

존 에이 그린

소영

자동차가 좁은 길목을 돌았으며, 운전하는 사람은 서서히 차를 몰면서 검은 색 건물들의 주소를 살폈습니다. 바로 3번지를 찾아냈습니다. 자동차는 곧 멈추었습니다. 잠시 동안 운전해 온 사람은 핸들을 잡은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르당에 있는 집에서 파리에 있는 이



곳까지 오는 데는 한 시간 반이 족히 걸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무어라고 말할까요?

“저는 알베르 루스띠라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말일’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

가장 정직한 방법이겠으나 좀 이상하거나 당돌하지 않을까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솔본느 대학 음악 학도입니다. 저는 알베르 루스띠라 하며 최근의 교회에 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여쭙어 봐도 괜찮으신지요? ...문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본 다음 할 말을 결정해야지.”

알베르 루스띠라는 차에서 내려 문으로 걸어 가 벨을 눌렀습니다.

과연 지금 그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교편을 잡으러 가기 몇 년 전만 같았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는 교회와 접촉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생활에 하나님과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도 성도의 벼슬 보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또 다른 그룹이 그로 하여금 성경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다른 교파의 목사들로 구성된 성경 강연회가 그에게 더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해석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는 인간의 역사상 예언자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고 인간이 시대와 그의 운명에 대해 잘 알아야 할 때 시현이 어둡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배운 자나 성실한 자가 혼돈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자들은 스스로 그들이 보아 오고 내다 보는 바를 같은 비중으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베르 루스띠라는 인

류의 미래가 말일부터 구세주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상세하게 예언되었다는 점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영성의 변천 과정을 예견하고 이를 설명하였으며, 특별히 두 개의 사건을 큰 정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친히 하나님 왕국을 세우신 때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말일이나 그 일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영적인 상태의 최고봉으로 말일이 이르기 전에는 다시 느껴볼 수 없는 때입니다.

알베르 루스띠라의 마음을 끈 것은 음악사의 변천 과정으로, 이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는 사람은 음악이라는 예술에서는 현저한 기복의 흐름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예술의 정점과의 사이에 가까운 평행선이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상의 예언자가 예견한 바를 뒷받침해 주고 확인해 주며 설명해 줄 음악적인 예언의 선을 바로 그 평행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라는 예술이 사회의 열망, 관심도, 승리와 실패, 악 등을 반영해 주며, 성경상의 예언이 이미 오래 전에 인간에게 사고와 행동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베르 루스띠라에게 인간의 영적인 진보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의 사회적 예술적인 진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평행하지 않아야 할까요? 인간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많은 의문을 가졌으며, 답을 얻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1970년 4월에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사적인 예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연구를 솔본느 대학교 음악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 주제가 너무 정통적인 면에서 벗어났고, 학구적인 면에서도 거리감이 있으며, 이에서 오는 논란에 대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유명한 불란서의 올겐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은 알베르 루스띠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긴 서문을 써 주었습니다.

“본인이 이 책의 서문을 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자가 쓴 몇 가지의 내용 중 종교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한 것도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제자로 파리 대학 시절 음악 이론반에서 수석을 한 음악도였으며, 내가 이 책의 서문을 쓰게 된 것도 그에 대한 사랑에서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인은 음악사와 그 진보 과정과 인류사와 인간의 기원, 멸망, 형벌, 부활등을 선언한 경전상의 예언과를 비교한 본서의 내용에서 의외의 일치점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잘 준비가 된 책입니다. 우리는 각장의 내용을 읽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서문을 쓰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알베르 루스띠는 교수들의 학구적인 전통에 맞게 재래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논문 제목을 재빨리 택하였습니다. 그는 “베를리오즈의 극장”이라는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대로 남겨 둘 수 없는 특정한 역사의 한 시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사적 예언”이라는 책을 쓰는 동안 발견하게 된 사실로, 만족스런 대답을 찾지 못하던 그에게 큰 의문점을 주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말일에 관한 것과 영적으로 깨우침이 일기 시작한 말일의 초기에 관한 것으로, 경전의 예언자들이 분명하게 설명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새롭고도 최종적인 기회를 의도한 것이나 이때를 증거할 구체적인 날짜는 물론 언급이 없었습

니다.

이제 알베르 구스띠는 경전을 연구하고 “인류사에 나타난 음악사적인 예언”이라는 책에 언급된 음악적인 “예언”의 기원을 조사해 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깨우침이 1798년과 1884년 사이에 어디선가 일어났으며, 그 기간이 전통을 파괴할 대혁신의 시기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마땅하나 그 사실을 증거할 만한 놀라운 영적인 시현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친구는 1884년 영국과 그의 나라의 성서 협회가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구라파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룹이 조직된 것을 들어 그가 찾는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느냐고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으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였으나 그러한 성경의 단순한 번역이 그가 이해하는 말일에 있을 위대한 영적인 깨우침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구라파는 수세기 동안 경전을 고수해 왔으나 구라파인들은 경전이 뜻하는 바와 경전에 대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입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구라파가 다른 대륙에게 보낸 새로운 성서 번역이 이를 받아들인 나라에 영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서와 똑같은 논쟁의 불씨를 낳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라파에서는 언제 그와 같은 영적인 깨우침이 충만하였습니까? 그가 이해하는 바로는 위대한 영적인 깨우침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있게 되며,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언의 권세가 회복되는 사실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베르 루스띠는 두 번째 논문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주님께서 1798년과 1844년 사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영광 벌을 모든 나라에게 내려 주시며, 어떻게 예언의 권세를 회

복해 주시나를 알아내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그는 물문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없었고, 그 기사가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들을 이상한 미국인 집단 정도로만 간주하고, 곧 이들에 관해 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같은 물문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읽게 되어 물문과는 두 번째의 접촉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사에서 그는 이 조직의 정식 명칭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일”이라는 말이 알베르의 눈에 크게 들어왔고 그는 기사에서 빠리 루테 로타 3번지에 있는 교회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찾아 왔고, 벨을 눌렀으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몹시 궁금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렸으며, 알베르 루스퍼가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는 지역 대표로 있는 스미스 비그리핀 선교부장에게 안내되었습니다.

알베르 루스퍼는 쉽게 본론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일”이라는 말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연구한 결과 경전에 예언된 위대한 영적인 깨우침이 1798년부터 1884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그 때를 전후하여 예언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궁금해서 찾아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알베르 루스퍼는 1820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첫번 시현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그의 부름, 복음의 회복, 1830년 4월 6일에 있었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 1844년 요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말일에 모든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알베르 루스퍼는 모든 사실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의 큰 의문점에 답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그는 영적인 깨우침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예언의 권세가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그에게 증거해 주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금식과 기도를 한 끝에 그는 1971년 4월 24일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베르 루스퍼는 지금은 교회의 장로이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최근에 개종하여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베르 루스퍼는 마침내 “베를오즈 극장”이라는 논문을 끝마쳤으며 이로써 1973년 솔본느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약간 수정은 되었으나 그가 초기에 쓴 책의 영역본이 곧 출간될 예정이며, 현재 그는 독일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느낀 작품이며 메시지입니다.

고인이 되신 존 에이 윌소 장로께서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비유를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 13 : 47-50) 알베르 루스퍼는 말일에 복음의 그물에 걸린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성경에 대한 간증과 그의 개종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며” (니이 29 : 9 참조) 많은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된 영적인 깨우침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주님의 선택된 자를 모으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곳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는 많은 놀라운 증거의 일부입니다. ㉠

존 에이 그린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다. 그는 오랜 38와드 교사 자질 향상 책임자이며 오랜 유타 사론 스테이크 주일학교 임원이기도 하다.



신권이 내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하워드 이 윌리스 글
제리 하스튼 그림

엠펙 내가 처음으로 신권의 권능을 느꼈을 때 나는 신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나는 크레메트 장로와 웨릿트 장로가 블랙버드 크리크에 있는 두 칸짜리 방이 있는 집에 찾아 온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장로가 무얼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으나 어쨌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다. 얼마동안 시일이 흐른 후 형인 보비와 누이인 도리스, 동생 버논과 나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 장로들은 침례 의식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오클라호마 톨사로 데리고 갔

다. 나는 이들 장로들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침례와 확인을 받고 나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 다음 한 해 동안 클레메트 장로와 웨릿트 장로는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덴버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버스가 떠나기 이틀 전까지도 나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었으나 마침내는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머니댁에 가서 작은 가방을 빌려 오셨고, 셔츠와 양말과 집 주소를 적은 편지 봉투 2개를 넣어 가지고 선교사와 함께 버스를 타러 떠났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으로 생활한 지 일 년만에 나는 신권을 받게 되었다. 양부이신 감독님과

할아버지께서 내가 10월에 있는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신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셨다. 대회 때 나는 전체 신권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가 덴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성찬을 전달할 수 있는 첫번 기회를 받았다. 나는 성찬을 전달할 때마다 갖는 느낌을 설명할 수 없으나 항상 좋은 느낌을 지닐 수 있었다. 나는 그 해에는 성찬 전달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러한 훌륭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나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였고, 정원회 회장 일도 맡아 하게 되었다.

학기를 마치고 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에 돌아왔다. 개학을 앞두고 내가 떠나기 직전에 동생인 링컨이 다리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덴버로 떠났다. 어머니는 양모에게 링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편지를 냈다. 다리의 염증이 이제는 뼈 속까지 침범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링컨이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기 전에 가족을 만나러 주말에 집에 오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양부는 우리 집에 속달 편지를 보내어 동생 링컨이 수술을 받기 전에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장로들이 금요일 저녁에 찾아 와 링컨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쁨 축복을 하였다

* 교회는 인디안(레이벤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말일성도 가정에 배치하고 학업을 마치면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는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링컨은 여섯 살이었으나 장로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전기의 충격과도 같은 느낌이 그 다리를 스쳐 갔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링컨이 월요일 아침 입원했을 때 의사들은 절단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다리가 완전히 나아 아무런 흔적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장로의 축복에 관해서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링컨은 걸어나왔다. 우리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나는 열 네 살이 된 해의 어느 일요일에 아론 신권 교사로 성임되었다. 교사를 역임하는 동안 나는 정원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어떻게 성찬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열 다섯 살이 되는 해에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일생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은 모두 신권과 관계되는 일이다.

열 여섯 살이 되던 해 내가 다시 여름 방학으로 집에 가기 전에 제사로 성임되었다. 우리 제사 정원회가 그 다음 스테이크 칩레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양부모님께서는 그날 내가 입을 칩레복을 새로 마련해 주셨다. 그러나 칩레를 받을 사람은 그들에게 칩레를 베푸는 사람과 같이 왔기 때문에 그날 그 옷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나의 양모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칩레할 때 입도록 그 옷을 사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고향에서 이 옷을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내 동생 링컨은 그 때 열 살이었으나 칩레

를 받지 않았으며, 어머니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셨다. 양모는 우리 가족 중에서 준비가 된 사람을 칩레할 때까지는 어디서든 그 옷을 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양모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칩레를 주기 전까지는 그 옷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까지 말씀하셨다.

그해 여름 양부모님이 방문을 하셔서 장로들을 만나시고, 우리 가정에 이들을 소개시켜, 어머니와 동생들이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왜 칩레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와 동생 링컨의 칩레일이 결정되었다. 어머니는 순수한 체리키 인디안이므로 레이맨인들이 하였던 대로 자기도 강에서 칩레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지부의 자매들이 어머니가 입는 흰 옷을 만들었으며 장로들이 동생 링컨에게 칩레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보관해온 칩레복을 꺼냈으며, 우리는 강을 따라 3킬로쯤 떨어진 곳으로 올라갔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 갔다. 어머니가 지정한 장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많은 사람이 칩레식에 참석했다. 선교부장 단으로부터 고등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틀사에서 온 사람이 많았다. 인디안 친척 중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었으나 나무 그늘 밑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나는 그날 저녁 그곳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링컨의 손을 잡고 물이 허리까지 차는 강 중간까지 걸어 들어 갔다. 나는 칩레 기도문을 수차 되풀이하여 암기하였으므로 실수를 하지 않았다. “링컨 플레스톤 윌리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칩레하노라. 아멘.” 나는 링

컨을 물속에 잠그었다. 그는 웃으면서 일어났으며, 나는 그를 강 쪽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머니와 나는 팔을 끼고 강물 중간까지 들어 갔으며, 그곳에서 칩레를 베풀었다. 어머니는 칩레를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셨으며, 나는 어머니의 뺨에 흘러 떨어지는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강쪽에서 교회 회원으로부터 확인을 안수받았다.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서 레이맨인이 직접 칩레를 베풀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칩레 받는 모습을 지켜 본 나의 백성과 우리 친척들이 그날을 기억하게 되고 장로들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장로가 될 것이며 신전에도 갈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신전에서 결혼하며 나의 가족을 인봉하게 되길 바란다. 나는 나의 아들이 신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선교사들이 나의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버지는 여름 방학에 내가 다시 내려가면 칩레를 받게 되셨으면 좋겠다.

신권의 의미에는 행동을 요하는 권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내가 매일 신권을 사용할 때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물으시며, 그것이 내 가족에게 어떤 훌륭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훌륭히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圖

여행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와 바다 동굴을 탐색한 적이 있다. 캄캄하고 무슨 짐승이라도 기어 나올 것 같아 나는 불을 켜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제의를 거절하시고는 팔을 꼭 붙잡고 나를 동굴 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안에 들어 오자 아버지는 내가 캄캄한 좁은 통로로 더 갈 생각도 하기 전에 내 손발로 모래와 벽을 탐지해 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 손을 놓고는 나를 안으로 밀어 넣고 길을 인도하라고 하셨다. 나 혼자라는 두려움이 앞을 막았다. 무서워 떨며, 감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나의 머리를 그의 가슴에 파묻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걸어 오기를 조용히 서서 기다리고 계셨으므로 나는 두려움과 싸우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떨리는 걸음걸이로 더듬거리며 가다가 마침내 동굴의 반대편 끝에서 들어 오는 빛을 볼 수 있었다.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웃으시

면서 이번에는 혼자 되돌아오라고 하셨다.

자만심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입술이 바싹 타웠으나 두 번째이므로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 가면서 이러한 여행을 강요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나는 곧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여 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벽을 발견하고 단져 볼 때마다 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새로운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빛이 들어 오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의 어머니는 기쁨에 찬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동굴

칼라 워런드

가 배운 교훈은 나는 용감하며 혼자서도 동굴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많은 것을 배운 이제야 나는 그 여행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나를 알 수 있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캄캄한 동굴과도 같다.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항상 밖에 머물 수 있으며, 성공을 확신하는 결의를 안고 안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여러분은 다른 여행자가 알려 주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 암흑의 동굴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은 눈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특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며, 감지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항상 마음 속에 여러분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며 그가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여러분의 모험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이 실족할 때 손길을 뻗어 준다.

워런드 자매는 미군과 함께 일본에 주둔해 있던 아버지를 따라 여행한 경험을 이렇게 썼다. ㉠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십이사도 정원회



습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지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6월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킵 대관장님께서서는 젊은이와 청소년 지도자와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습관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습관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었을 때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인

격과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나는 훌륭한 성품을 개발하는 데 훌륭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인이 되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뿌리고 행동을 거두어 들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뿌리고 습관을 거두어 들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뿌리고 인품을 거두어 들이며, 인품을 뿌려서 운명을 거두어 들입니다.” (시 에이 홀, 인용구집, 뉴욕, 도드, 미드 엔드 컴페니, 1935년, 845 페이지)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훌륭한 사고 방식, 마음의 평안,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결단력으로 충만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 중 성스러운 자를 위해 우리의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해의 왕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선천적으로 지

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고상한 인품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인생 행로와 형성해야 할 습관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받았습니까.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항상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분리시키고 달리 이끄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훌륭한 습관은, 사고가 행동에 선행되어야 하지만, 훌륭한 결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성품은 일상 생활의 과정에서 개발됩니다. 인품은 커다란 시험이나 시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끌고 인품을 형성해 주는 습관은 흔히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형성됩니다. 매일의 실천하는 생활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 : 6)

어린 아이 시절에 훌륭한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면 미래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 주는 게 됩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어린 아이는 죄를 범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연령에 이르기까지는 사탄의 권세도 그들을 위압하지 못한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이의 첫 8년은 부모가 그들의 훌륭한 습관을 형성시키고 고상한 인품을 개발시킬 수 있게 주신 황금기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실하게 살도록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쁜 습관을 멀리 하십시오...” (설교집, 11 : 118) 이런

고는 젊은이나 성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항상 알지는 못하나 의로운 행동에는 힘과 안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 가야 하며 영생을 향해 올바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 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인격 형성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참된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 방법이 우리가 따르겠다고 공언하는 말보다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모든 습관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이겨 내며 의로운 장소에 선을 축적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인생의 방법이 항상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표준은 변화하지 않으나 점차로 단호하게 그의 자녀를 위해서는 인생의 옳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를 지닌 자의 설득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습은 우리의 사고, 행동, 인격, 성품을 반영해 줍니다. 악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앙, 정직, 온전, 의로움의 은사를 손상시켜 줍니다.

“악습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그가 지닌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록의 초기 예언자였던 리하이 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니이 2:5)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선과 사탄의 계획인 악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습성은 우리의 인품과 인생을 파괴합니다. 처음으로 죄에 굴하게 되면 우리의 자제력과 극기심과 인품이 약화되며, 계속해서 범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영적인 율법을 범하고 영적인 자질을 거부하면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대항할 힘을 잃게 됩니다. 오랫동안 악습에 젖은 사람이 이를 저주하였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다시 붙잡고 있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대한 목표는 자제심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배워야 하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며, 거룩한 힘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사업을 몰아내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가 주장하는 목표를 분쇄해야 합니다.

습관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성 58:28)

어느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악습이나 죄나 약점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모든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데서 훌륭한 습관이 생긴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력은 끈질긴 투쟁의 형태로 나타 나기도 합니다. 악습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후 이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에게 열심히 간구할 때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찬송가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합소서
은혜로우신 주

.....

결에 머무소서

주 곁에 계시면

유혹을 이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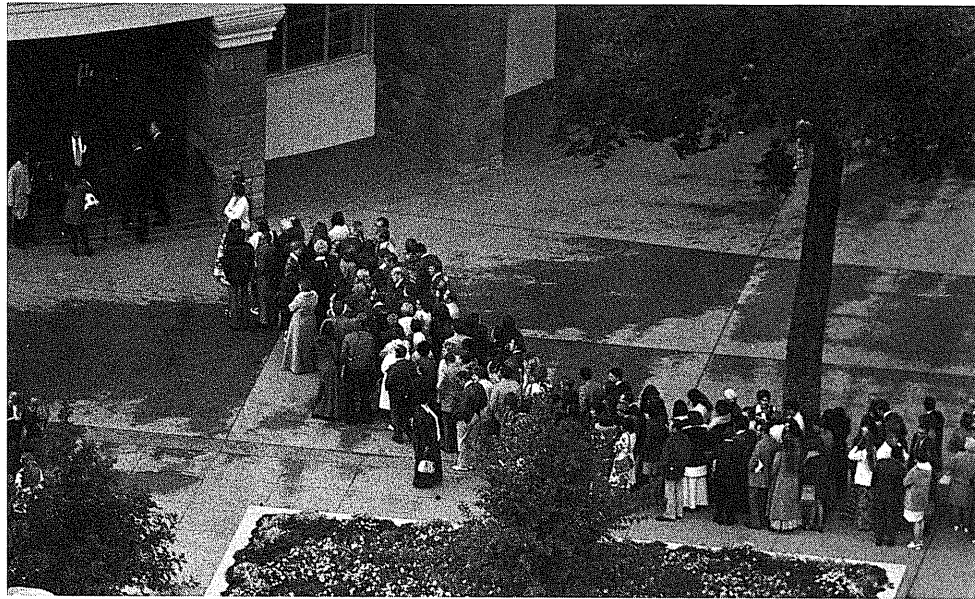
찬송가 53장

우리는 성실히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구세주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도와 주실 자비롭고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자제력, 극기심, 자기 수련 등은 나쁜 일로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악한 힘을 물리치는 필요한 능력입니다. 나쁜 습관을 정복하고 그의 악영향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악습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로 살아 가며 성실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는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자질을 쌓고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해로운 일에는 가담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신앙과 간증에 민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지녀야 할 훌륭한 습관의 하나로 우리의 책임을 알게 하는 경전을 읽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이를 지키므로써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인 의로움의 길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나의 일상의 생각과 현재의 행동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가? 나는 영생의 목표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결여된 노력이라면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로 불충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하다란 말은 도덕적인 원리와 목적의 순수성을 암시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을 의와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예란 말은 오늘날 들을 때 매우 낡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 말에는 의무, 책임, 영원한 가치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로운 행동 강령과 높은 책임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과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탐욕, 주정, 불명예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높은 길에 자신을 세워 놓아야 하며, 우리를 완전한 인격자로 이끌어 줄 성실한 노력, 신의, 정직, 도덕, 기타 여러 훌륭한 속성을 지니고 사심없는 봉사의 자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영원한 운명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모든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격은 부지런한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네스트 엘 윌킨슨 브리감 영 대학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이란...쉽게, 나태한 상태로 얻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리로나 혹은 경매장의 연단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복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인품이란 형성 자료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습관을 갖는 이 세상에서 형성됩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지닐 때 그 국가는 훌륭한 국가가 됩니다. 개인이진 국가이진 간에 선량함이란 단지 악행이 없는 상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놓아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는 모든 진

리, 정의, 평화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얻는 방법으로 행동 표준을 완화하고 악습을 따르게 하는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개정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준 표준과 진리는 모든 그의 자녀를 위한 생의 참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개인적인 훌륭한 습관은 우리의 인품을 강하게 지켜 주며, 선을 향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며,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며,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며, 진정한 만족을 맛보게 하고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을 심어 주는 것들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바라고 갈구하던 보화를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리니 이는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서 58 : 28)

그 모든 것이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악을 버리고 훌륭한 습관과 의로운 표준으로 영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딤시다.

나는 훌륭한 습관의 가치와 인간의 생활에서 칭찬할 만한 성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앞에서 인용해 주신 말씀은 참으로 현명하며, 시기적절하며,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권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1974년 10월 4일 제144 반연차 대회
 금요일 아침 모임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준 구세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종사
 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그의 메
 시지입니다.

엘름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문 나는 최근에 닷새 동안 학교에 돌아가 자료 처리 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다시 학교의 분위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그곳에서 인간이 개발해 낸 문명의 이기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몇 가지 기호의 견반을 눌러 5000킬로미터 밖의 자료를 정리해 내는 강사의 솜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불과 5초만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신형 속도 인쇄기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인쇄기와 다를 바가 없으나 내가 지금까지 보아 온 어느 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가 되며 이렇게 인쇄된 종이의 운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한 줄 밑으로 내려 가서 뒷면이 인쇄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속도와 정확도와 고도의 진보된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발명한 이러한 과학 기술품을 살펴보면 내가 대여섯 살 때 처음 본 기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는 나의 아버지께서 감독으로 계시면서 사무 일을 돕던 수동식 구형 기계였습니다. 나는 지금까

지 살아 오는 동안 사업계에서만 도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창조적인 건축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돌봐 주실 자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의 예언자께서 인용하신 성구를 다시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편 24 : 1)

경전에서 주님께서 의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충만하다는 말을 쓰신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이나 결핍이란 말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 : 28)는 그의 원래의 가르침을 인간이 따르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에 살기 시작하는 때부터 따라야 할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그에 대한 간증을 지닐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율법 사로부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6-40)

구세주의 이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근본되는 중요한 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 뜻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도록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재확인해 드립니다.

첫번째 말씀은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험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엘마는 백성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으며 구세주가 오시기 15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 준 것으로 보아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엘마는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마라 하는 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심히 간악하고 사신에 젖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이 많고 백성들에게 감언이설을 퍼뜨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가 행하는 죄악을 좇아 행하게 하였고, (모사이아서 27 : 8)

그의 아버지는 엘마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 후 주님께로 나아가 그가 스스로 자기 행위의 그릇됨을 알 수 있어서 옳은 길을 따르게 되도록 표적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들 엘마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회개를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시현이 있는 후 엘마는 땅에 쓰러졌으며, 그의 놀라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병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었으며, 힘이 빠져 혼자 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 그의 아버지 앞에 다눴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주님의 권세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제사들이 함께 불러 모으고 엘마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틀 낮과 밤을 금식과 기도로 보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엘마는 기운을 되찾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육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사이아서 27 : 24-26)

엘마의 말은 우리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보람있는 경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증거해 주었습니다.

개심이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생활 방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전에 나오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를 다시 예로 들겠습니다.

신약전서는 구세주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있던 한 사람에게 관해 말해 줍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 : 18-20)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가 세상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부름 중 하나를 택하여야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세주와의 친분 때문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방법으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은 그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 올라 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 : 2)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후에도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약속과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 : 31-32)

베드로는 구세주가 인간에게 준 시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현을

보았으니, 이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도 베드로는 그의 개심의 참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본 후 구세주가 다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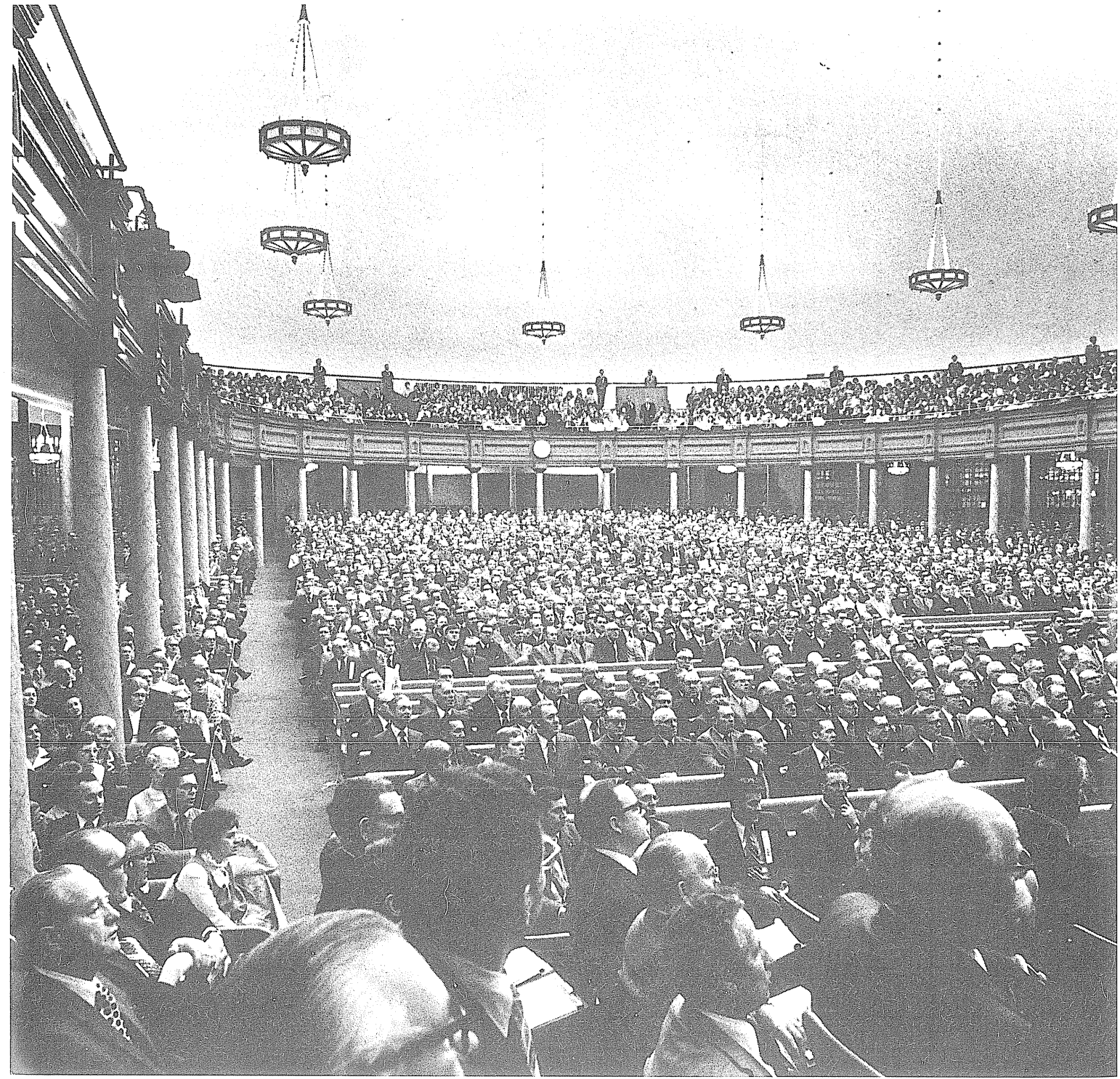
들을 떠나고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베드로는 먼저 세상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21:3-6)

여기서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기와 세상의 것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한 일은 그의 사업에는 제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구세주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사명에 관한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

그런 다음 두세 차례 더 물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17)

마침내 베드로는 “너희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개종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그것이 곧 구세주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심을 통해 오는 우리가 맺은 약속의 참된 가치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주님을 아는 일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개심의 과정이 다른 형제들의 생활을 굳건히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

로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존 테일러 대관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836년 4월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테일러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존 테일러 형제는 다른 교회의 목사였으므로, 프랫 형제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는 프랫 장로가 행한 여덟 가지 설교 내용을 모두 적어 경전의 내용과 틀리는 것이 없나를 일일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는 근 3주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알아 보았으며, 여기서 만족을 얻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 년 후에 존 테일러 형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배도의 기운이 그 마을을 감돌고 있었으며, 슬프게도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프랫 장로는 테일러 형제에게 왜 자기가 예언자 요셉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에 존 테일러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팔리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군요. 형제님은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가 시작한 이 사업이 진실됨을 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일을 계시와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과 하늘의 천사가 다른 말을 선언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팔리 형제님, 나는 인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형제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형제님이 지니셨던 것과 같은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 전에 참되었다면 오늘도 참되며, 요셉이 당시 예언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예언자입니다.”(비에이치 로버츠, 존 테일러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63년, 39-40 페이지)

팔리 피 프랫 형제는 자기가 잘못이었음을 알아 예언자 요셉을 찾아 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다시 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참으로 개종한 존 테일러의 말씀이 팔리 피 프랫 형제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이 세상의 풍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안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돌리고, 그의 양을 먹이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형제를 굳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개심의 참뜻을 알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엘마나 베드로나 존 테일러 대관장, 기타 이 경륜의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업을 시현으로 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요, 오늘이 대회를 진행하시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바를 사실대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많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시골 김볼 대관장님, 이제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대회의 진행 과정을 시청하거나 청취한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마음 속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놀라운 일을 본 후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

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마 17:4)라고 말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 우리도 모두 이 대회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따뜻한 영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겨울날 나는 뉴욕의 맨하탄과 교외 웨스트체스터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위를 차를 타고 친구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간이 놀라운 기술로 이룩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곳의 명소를 일일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양키 스타디움이 눈앞에 들어 왔습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그토록 좋아하던 야구 선수들의 본 고향에 온 것입니다. 참으로 수천 관중을 매혹시키고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는 대 선수를 우상으로 받들지 않는 소년이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라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중과 땅콩장사와 매표원

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베이비루드, 루 게리그, 죠 디마지오 같은 대선수의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묘기의 기록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 구조 내부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참된 지도자를 위해 마련된 자기나름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도해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장식품이나 세속적인 재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개인적인 성역으로 받아들여 존중할 만한 지도자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뜨겁게 해주고 의무에 대한 복종을 남성의 근본으로 삼고, 일상생활의 일을 변형시켜 우리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분간은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대상자가 거쳐야 할 자격있는 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리에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지명할까요? 대상자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나는 그 영예 전당에 지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모세서 5:5) 아담은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인내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인 욥의 이름도 지명되어야 합니다. 남달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이 높은 데

* 위대한 인물의 영예전당...유명한 미국인의 초상화나 흉상을 장식한 뉴욕 대학의 주랑. 1900년 창설, 5년마다 수명의 새로운 인물을 첨가함.

제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욥 16 : 19-20),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제시니라”(욥 19 : 25) 용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을 지명할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영혼을 먹이는 만나였고 그의 봉사의 생애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모범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선교사는 만천하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 바울도 자격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칩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 : 13-16) 베드로도 자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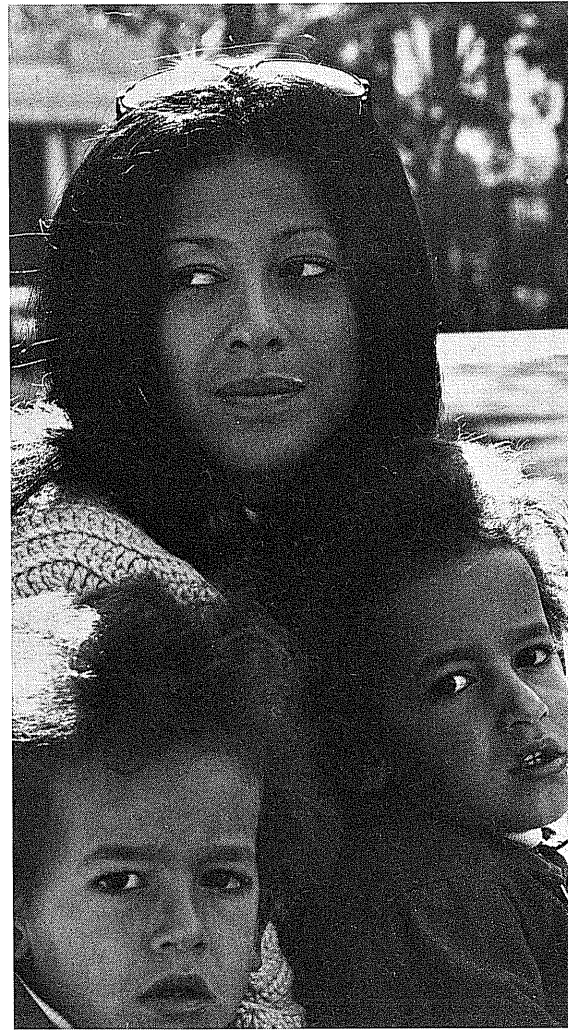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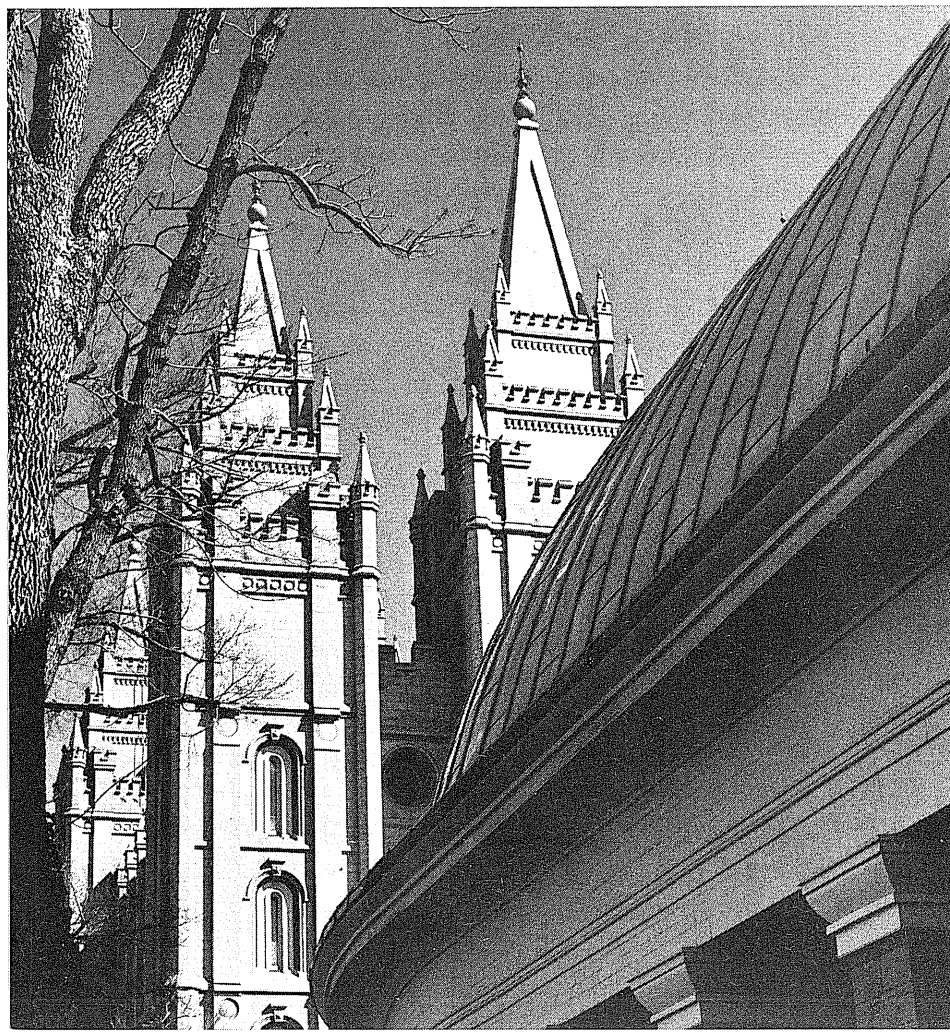
우리는 미대륙에 살았던 니파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

이일서 3 : 7) 분명히 니파이는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입니다.

내가 지명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입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과 간증은 그가 카테지 감옥으로 순교를 당하려 가면서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성 135 : 4) 그는 그의 피로써 그의 간증을 인봉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 영웅을 지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와 같은 충성심의 고상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릿입니다. 전강한 두아들을 잃고 비통에



잠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아는 뜻은 충성심을 가진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룻의 행위는 그의 말의 순수성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영예 전당에 오를 만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룻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한 이름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나사렛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리를 향해 걸은 유일한 죄없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스럽고 역사적인 사명을 그녀가 받아들인 것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확실히 마리아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구세주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라고 대답드립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인생의 천에 황금실로 수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영웅들이 목숨까지 바쳐 가며 성실하게 받들어 온 영광의 왕인 구속주는 누구일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가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바로 이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그는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멀리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얼굴을 맞대고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이 얼마나 죄 없고, 사심 없고, 고귀한 삶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는 사랑하셨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는 울기도 하였고, 병을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영생에 이르셨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야말로 영예 전당의 상좌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영예 전당에 오른 영웅들을 열거 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그랬듯이 순종하고, 욕처럼 인내하며, 바울처럼 가르치고, 베드로처럼 증거하고, 니파이처럼 봉사하며 예언자 요셉처럼 자신을 바치고, 룻처럼 효도하고, 마리아처럼 영예롭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남아빠진 자아를 영원히 던져 버리고 이와 함께 실망, 의심, 의혹, 실패 등을 물리칩시다. 희망, 신앙, 용기,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지고 가지 못할 책임도 없습니

다. 부담스러운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범을 살펴 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는 한 와드를 관리하는 크레이그 수드베리 감독이 계십니다. 몇 년 전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으로 부름을 받아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와 함께 나의 사무실로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의 부친인 프레드가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어머니가 20년 전에 프레드와 결혼하였으나, 프레드는 아내가 지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크레이그는 그의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의 아버지가 성령에 감화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상받게 될 수 있는가를 간구하였습니다. 영감이 떠올랐으며 나는 크레이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스러운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 형제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전하십시오”

그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후 크레이그의 어머니를 18개월 동안 뵈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노력하여 선교지에서 중책을 맡아 일했으며, 매주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

최근에 제 남편이 처음으로 성찬식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내가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편지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하나 소개해도 괜찮은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훌륭한 구도자의 가족에게 구원의 계획과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

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에게는 해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는 아들 크레이그 올림"

"그런 다음 프레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내와 아들 크레이그를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 26년만에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들이 선교사로 간 후에 비로소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주님의 복음 선교사인 그의 마지막 칠펜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지닌 한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과 함께 현대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갖겠다는 그 목표가 아버지와 그 사이를 가로 놓는 거리의 장벽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이 푸른 태평양을 넘었으며, 거룩한 대화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 깊은 물속에서 오른손을 높이 치켜 들고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칠펜기도를 드리는 크레이그처럼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프레드 수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아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 아들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모두 영예 전당에 들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합시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교리와 성약 76 : 5-6)

영원한 영예 전당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이렇게 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며, 하나님의 증보자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圖



가장 중요한 지식

복음에 대한 간증은 진지한 탐구에서 나오며, 구원은 복음대로 살았을 때 옵니다.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노랑색 봉투가 대회의 일요일 아침 모임에서 행할 말씀을 준비한 자료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서 다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오르면서 3, 4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이름이나 주소를 서로 교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내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은 그가 바로 이 대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의 값진 가르침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지식 중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며 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잘못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대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고 한 이사야의 권고와 같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다 풍성하게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의친 말씀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는...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5-16)

나는 성신은 진리를 알고자 열심히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교회에 자기 교구의 회원을 잃고 있어 화가 난 어느 선교 목사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 교구에 와서 우리 회원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들은 모두 선량한 크리스찬이요.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다시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사실과 신권의 권능을 인간에게 회복해 주셨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으며, 그래서 18,000명에 이르는 젊은 남녀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이 말일에 한 젊은 소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구세주의 재림의 전초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들은 신회의 두 분이 지상을 다녀 가신 후 신권의 권세가 하늘의 사자에 의해서 지상에 회

소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서게 된 것과 이 대회에서 들은 간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솔트레이크 공항을 지나 가다가 어느 젊은이와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짧은 대화 중에서 그는 내가 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수로써 침례를 베푸는 권능인 아론 신권을 회복하는 데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책임자가 있었습니까? 구세주께서 합당한 권능과 침수로써의 침례의 모범을 보이실 필요를 느끼서 찾아 간 분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몇주 후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셨는데, 이 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 훌륭한 적격자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안고 지상에 되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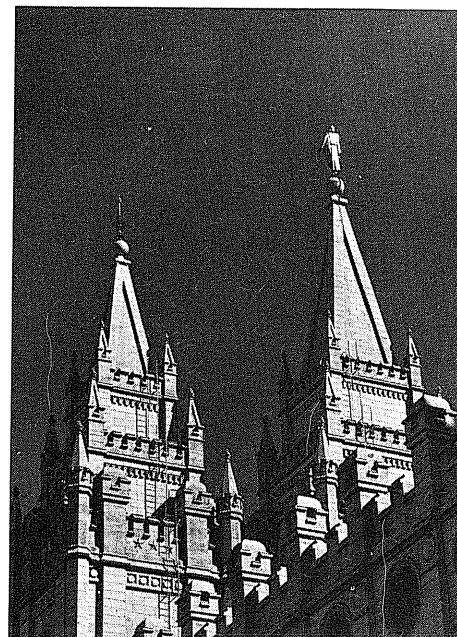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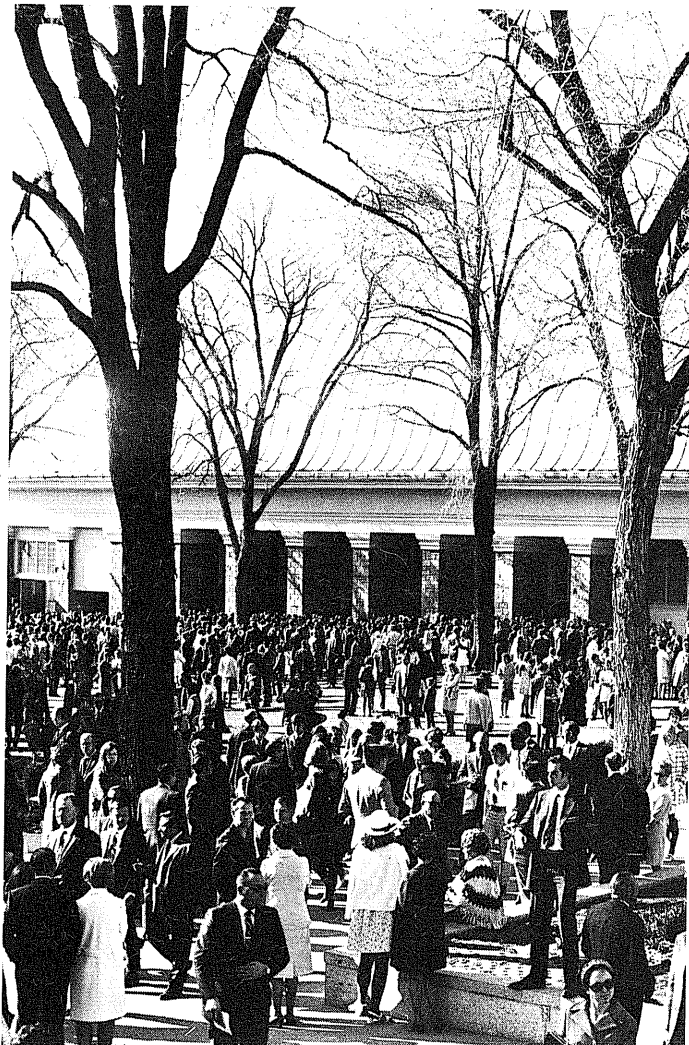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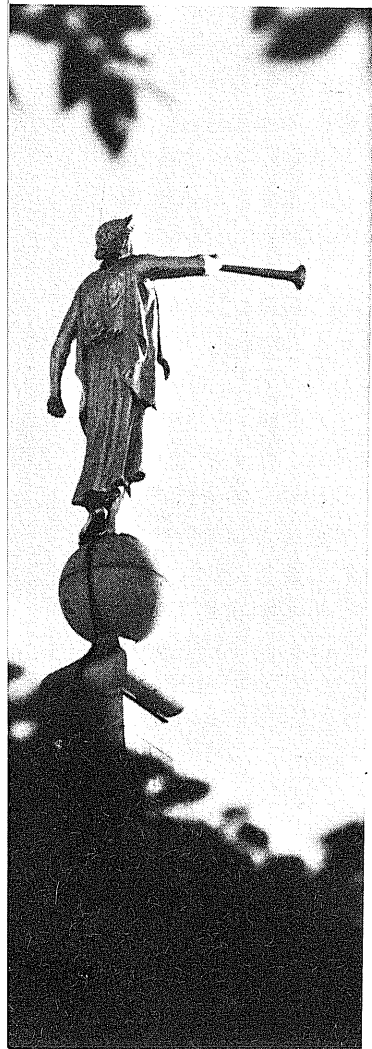
하나님의 집이 질서의 집임을 선언합니다. 그의 성스러운 목적은 인간의 환상이나 기분에 따라 이행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은 그의 이름을 지닌 이 교회에서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 5:4)고 한 바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의 권능은 1829년 봄에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회복되었습니다.

144년 전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재조직된 이래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훌륭한 느낌을 이웃과 친지와 국외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말이 이 교회의 구호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선교사가 자유 세계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의 빛을 비취 주었습니다.

진리에 귀의할 때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회개와 침례의 길을 열어 줄 때 용서가 낳는 기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줍니다.

말일의 이 위대한 선교 사업이 진행되는 세계 도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두 가지 예를 들어 가



며 잠시 여러분을 세계 여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먼저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위로 가족의 유대가 완전히 깨진 14명의 가족을 가진 남태평양의 어느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현재는 목표가 있고 합당한 규율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큰 사랑이 있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신전에서 영원히 인봉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모두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절망에 빠져 자살까지도 생각한 아버지가 19세와 20세 된 두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형기를 마칠 때가 가까와 온 한 흑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부하고 생각에 잠길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칩체반을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회에 진 빛을 갠고 고향인 미시시피에 돌아가면 아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교회를 알리겠습니다.”

한번은 남태평양 상공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스텐더스가 와서 우리가 우유를 세 차례나 청하는 것을 보고는 물몬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끝나는 대로 캘리포니아에 돌아가 선교사들과 세 번째 토론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토론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칩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물몬 청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청년 실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국 이 일을 해냈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까와졌고, 세 자녀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제프와 안젤라는 이웃 친구들과 초등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초등학교가 있는 날 우리 집 저녁 시간은 초등학교의 전시장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생각과 태도를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렸습니다’ (사 11:6 참조)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으며, 이제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로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몬을 알기 전까지는 가족의 유대나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물몬 선교사들의 성실성에 감화를 받아 그들을 집에 초대하여 가족들을 만나게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되돌아가라는 쪽지를 문에 붙여 놓아 그들을 보지도 않고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중재해 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6주만에 남편은 버스에서 만난 훌륭한 두 청년에 대해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족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여섯 식구가 모두 칩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전에 자기가 남편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두 젊은이가 바로 그 두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칩체를 받은 후에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

법으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찬송가 200장 참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몬은 행복한 사람들이며, 안정된 사람들이며,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몬은 믿음직스럽고, 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충실하지 않은 물몬도 있더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일 여러분께서 잘못을 범하는 물몬을 알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는 그과 끝 회개하게 되기를 빕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많은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을 극복해 내든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수하고 영원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진실됨을 알아 보기 위해서 구세주의 방법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구세주가 선언한 말씀을 나의 간증으로 드립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 복음 7:16-17)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생과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생전에 일어났던 일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사탄을 이기는 권세

적을 대항하기 위해
성신의 등반을 구함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과거 경륜의 시대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나타내진 진리를 알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 현세, 운명에 관한 충만한 진리를 축복으로 받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습

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했던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들로 채우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루시퍼는 그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모세서 4:1 참조)고 계의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권을 가진 모든 인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와 강압으로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강압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계의는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루시퍼는 “성내서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니, 그 날에 많은 자가 그를 떠났습니다.”(아브라함서 3:28 참조)

우리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나 이러한 지식을 적절히 적용하는 예지가 부족한 루시퍼가 그를 떠르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반항한 비극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추방되었으

나 사악한 힘을 갖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받아들여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그가 강해지고, 악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 내어 지혜와 의로움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4-25)

이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그러니 사탄이 살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영의 형태를 취한 사탄의 위용을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이 육신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지는 마십시오. 사탄은 창세 때부터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고 무모한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악마란

없다고 가르치거나 겁에 질린 사람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허깨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까요? 그의 술책은 어떤 것일까요? 사탄은 그의 간교한 지혜와 독특한 설득력과 완전한 거짓말로 그를 따르는 영의 자녀와, 그의 악한 방법에 굴하고 여호와와 그의 추종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인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젠고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반기를 들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사탄은 저들을 선동하여 저희 영육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느니라.”(교성 10:22)

“참으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고, 잠복하여 있으라. 보라, 이것은 아무런 해도 없도다...”

“이같이 사탄은 저들을 감언이설로 피어 인도해 나가며 드디어는 저희 영육을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나니 이같이 사탄은 자기가 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니라.”(교리와 성약 10:25-27)

사탄은 작은 죄가 작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처음에는 우리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며,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끌어 들입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빠져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상용, 육설, 부모에 대한 불순종, 동료에 대한 속임수 등은 사탄이 우리를 정상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사용하는 방편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지속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곧 후회, 비통, 손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쳐 놓은 가장 악랄한 덫의 하나가 부정이라는 덫입니다.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며, 그 힘이 보호되고 성스럽게 지켜질 때 측량할 길 없는 행복과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어 더럽혀진다면 슬픔, 비참, 자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대관장단은 몇 년 전에 부정이라는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지 말도록 말일성도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리는 남녀의 부정한 관계인 성적인 죄를 그 사악함에 있어서 살인 다음가는 큰 죄로 보며,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 심판의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처치 뉴스, 1952년 2월 13일자 16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범법자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힘을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의지함으로써 사탄이 사주하는 악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은 성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신이 우리의 내부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경전 공부, 기도, 주님의 계명에 따른 성실한 생활, 교회의 책임 이행, 훌륭한 이웃이 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밤 프로그램 활용 등은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신을 끊임없는 동반자요 보호자로 갖게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 특히 청소년이 오늘날 유혹을 받고 있는 방법을 알고 몸서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요,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만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덫에 떨어져도 부모, 신권 지도자, 교사는 그들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함정에서 평지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최근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께서서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사탄의 존재와 권세와 계획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에 대한 강한 간증을 지닐 때 그들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줄 큰 일을 이루게 된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교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관리하시며, 그를 진실로 따르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가 선택하여 복종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앨 3:27 참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한 인 상

우리 교회에는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십니다. 지금 대관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우리 교회의 열 두번째 대관장이십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종에게 미리 알려지 아니 하시고는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던 그리스도의 종 요셉 스미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셨던 예언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음의 지침을 여러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홍수를 예언하는 노아의 경고의 음성이었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며 물의 침례를 베풀던 짐레 요한의 회개를 외치던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되어 있던 시절에 광야를 지나면서 사약하여 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불뿔을 놓아 저들을 몰도록 징벌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장대 끝에 뿔뿔뿔을 달아 불이 치켜 들었고 불뿔에 들린 사람이 이를 쳐다 보기만 하면 낮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뿔뿔 뿔을 올려다보는 일은 극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에 걸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어려운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자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위에 작은 시온과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강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1937년 부터 지시 하셨습니다.

계보 4대 프로그램을 권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하시며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밤을 규칙적으로 가지며 가족 기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순결의 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 되라고 하시며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직환 심일조를 바치고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탐구하되 특히 몰몬경을 탐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걸이의 족을 넓혀 더욱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권고와 지시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교회의 간행물을 통하여 읽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특권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거나 행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살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뿔뿔 뿔을 쳐다보는 일이 너무 쉽고 간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만류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여 세계 무슨 일을 시키시겠나이까?”라고 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길을 따르고 그 답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미덕을 갖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위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와 가깝게 될 수 있나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10월대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